

낙동강 만행길 낙단보 마애불 친견하고 방생...

결사대중, 낙단보 마애사에서 법회

신라불교조전지 아도화상현향제
회주 자승스님, 천년대향로 공양
“걸음마다 국난극복 불교중흥”

낙동강을 따라 서울 봉은사로 향하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동참 사부대중은 10월12일 의성 낙단보 마애사에서 법회를 봉행했다. 이곳은 4대강 공사 도중 훼손된 채 발견됐던 낙단보 마애상(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32호 의성 생송리마애보살좌상)이 봉안된 사찰이다. 고려 초 조성된 낙단보 마애보살상은 2010년 낙단보 공사 중에 발파작업을 하다가 세상에 드러났다. 1000년 역사를 가진 마애보살상이 발견됐음에도, 정부는 4대강 공사현장이라는 이유로 불상 보존에 난색을 표했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소임을 맡았던 자승스님은 낙단보 공사현장에서 마애보살상을 참배하고 강력한 보존 의지를 천명했다. 자성과 쇄신결사의 일환인 문화결사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낙단보 마애상 보존과 민족 문화 수호 의지를 다졌다. 2011년 2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동참 사부대중은 10월12일 의성 낙단보 마애사에서 마애보살좌상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 중앙종회의장 범해스님, 호계원장 무상스님, 교육원장 진우스님, 포교원장 지홍스님 등이 참석했다.

직 일반직 종무원을 비롯한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생명살림 민생안정과 민족 문화 수호를 위한 1080배 정진’을 올리는 등 노력의 결과, 2011년 9월22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32호로 지정됐다. 이어 제16교구본사 고운사를 비롯한 사부대중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낙단보 마애사 관리동과 보호각 건립 운동을 전개했다. 소중한 불교성보를 지키고 후대에 전승하겠다는 노력이 더해지면서 2017년 4월1일 당시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단보 마애불 관리동 기공법회 봉행했다.

의성 마애사 주지 원종스님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때 추진된 4대강이 주요 사업이라 공사 중에 발견된 마애보살좌상을 우리 힘으로만 지키기엔 정말 어려웠다”며 “당시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나서 힘써준 덕분에 마애보살좌상은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고, 낙동강을 따라 천년을 이어져 온 불교성지를 되살려 국민의 신앙처로 회향할 수 있었다”고 감사해했다. 고운사 주지 등운스님은 “부처님께서는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중생을 제도하고 길 위에서 열반에 드셨다”며 “그 길을 따라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부처님 모습을 따라 인도 만행결사를 하려다 동화사에서 봉은사까지 행선에 나섰다. 걸음걸음 나라가 평온해지고 지역 불교가 활성화되길 기원한다”고 인사했다. 또 “자승스님이 총무원장 재직시절 마애보살좌상이 파괴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한달음에 달려와 문화재보존을 피력했고 2017년 기공식 당시에도 참석했었다”며 “당시 고운사 주지였던 호성스님 등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지켜낸 불사이다. 길을 둘러서라도 외쳐서 고맙다. 스님의 깊은 뜻을 마음에 새기고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종회 부의장 범원스님은 “마애

불을 함께 친견한 것을 계기로 사부대중 모두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을 위해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부대중은 법회 후 낙동강에 참봉어 치어를 방생하고 순례길을 이어갔다. 이에 앞서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발원하는 아도화상전 현향제도 구미 신라불교조전지에서 거행됐다. 구미 도리사는 10월11일 자비순례단을 환영하며 의식을 가졌다. 현향제는 향기롭고 상서로운 향을 피워 나쁜 액운을 물리치는 의미를 담은 주향의식으로 시작됐다. 이어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이 김정순 도리사 아도화상 현향회장이 전달한 천년대향로를 아도화상 전에 공양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날 “구미시는 신라불교조전지로서 찬란한 불교문화를 얻 본고장이다. 불심 깊고 부처님 자비 속에서 많은 발전을 해 왔고 앞으로도 지역문화 발전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인사했다. 중앙종회의장 범해스님은 “부처님께서 45년간 씬 없이 걸으며 중생을 제도했듯이 한걸음 한걸음에 깨달음을 심어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상기시켜 줄 것이다”이라며 “신라불교조전지 성역화를 시작으로 한국불교가 중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혔다. 구미·의성=어현경 홍다영 기자

교육원장·포교원장 스님
순례단 격려 순례 동참

“부디 무탈하게 회향하길...”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스님과 포교원장 지홍스님이 10월11일 구미 신라불교조전지에 도착한 자비순례단을 응원하기 위해 격려 방문했다. 교육원장 진우스님과 포교원장 지홍스님은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과 결사대중으로 동참한 중앙종회의장 범해스님과 호계원장 무상스님, 주운식 중앙신도회장 등을 만나 차담을 가지며 그간의 순례 과정을 전해 들었다. 이 자리에서 회주 자승스님은 “지금까지 80여 대중 가운데 50여 명이 발에 물집이 잡히거나 통증으로 의료지원실을 다녀갔다” “새벽에는 춥고 해가 뜨면 더워져 기온차가 크다” “다들 맘을 많이 흘린다”는 등의 상황을 전했다. 자승스님은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라는 전 불교 대중이 길을 걸으니 신심이 난다. 이런 마음은 순례단과 함께 걸어본 사람만이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원장 진우스님은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을 위해 만행에 나선 사부대중의 큰 원력이 반드시 실현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교육원장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평생 길에서 수행하고 전법 포교에 나섰듯, 그 큰 뜻을 되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례단의 만행이 무탈하게 회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포교원장 지홍스님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요즘, 사부대중 공동체가 원력을 세워 걷기순례를 나선 것은 의미가 깊다”며 “건강하게 행선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육원장 스님과 포교원장 스님은 다음날인 10월12일 새벽5시경 순례단과 합류해 한 시간 반 동안 함께 걸었다. 두 스님은 낙단보 마애부처님을 친견하는 법회에도 참석해 자비순례 원만회향을 기원했다. 구미·의성=홍다영 기자



“부처님이 걸으신
그 길 따라
건고 또 걸으면서
희망을 기도하다”

10월13일 오전, 국난극복·불교중흥을 위한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일주일을 맞았다. 사진은 상주보를 출발한 순례단이 우산재를 향하고 있는 모습.
상주=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결사대중과 행선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희망 발원한다”

■ 조계종 호계원장 무상스님

공주 이어 자비순례 동참
“견다가 쓰러져도 좋다 원력”

자비순례 셋째날인 10월9일 하루 33km를 걸으며 무사히 정진을 마친 호계원장 무상스님이 의무실을 찾아왔다. 발가락에 생긴 물집을 치료하기 위해서다. “어제 2개, 오늘은 7개 물집이 생겼다.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공주 순례도 완주했는데, 이번에도 재가자들과 함께 정진하니 신심이 난다”고 스님은 말했다. 호계원장 스님은 인도 만행결사 소식을 들은 순간 동참기로 발심했다. “인도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갔는데, 걸어서 성지를 순례하는 스님을 본 적 있다. 나도 꼭 부처님 성지를 걸어서 가보고 싶다고 원력을 세웠는데 한국에서 소임을 맡다보니 여력이 되지 않았다. 처음 상월선원 만행결사 인도순례 얘기를 듣고 참가신청을 했다. 처음에 나이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뜻을 꺾지 않았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견다가 죽으면 갠지스 강에서 다비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원력을 세웠다.” 걸어서 부처님 성지를 가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으로 스님은 공주 예비순례에 동참한데 이어 이번 자비순례에도 21일 전체 일정에 동참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인도 성지순례를 떠나지 못하지만, 국내에서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하는 것



호계원장 무상스님은 세수 일흔이 넘는 고령이지만 물집 잡힌 발을 보이면서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수행이 정말 좋다”고 말했다.

또한 정말 좋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위기를 맞은 요즘, 불교도 신도와 출가자 감소를 겪고 있다. 이런 차에 스님들이 나서 국난극복을 염원하며 행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스님은 믿는다. “가사를 수하고 여범하게 수행하고 신도와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며 신심을 내는 이들이 분명 많을 것”이라며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가치있는 수행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해인사 선방에서 첫 철을 지냈다는 스님은 당시 방장인 성철스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기억난다. “방장 스님을 찾아가 첫 철 정진 후 느낀 희열을 설명해 드렸다. 스님은 대뜸 ‘이 자식 반딧불이야’ 하며 큰 소리로 나무랐다.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낀 희열이 반딧불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40년간 스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스님 말씀이 ‘평생 선방에 다녀도 한 번도 못 느낀 사람이 있고 어쩌다 한 번 느낀 사람, 가끔 느끼는 사람, 자주 느끼는 사람이 있다. 첫 철에 공부 잘했다’며 인정해주며,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다.” 스님은 “출가해 선방에서 정진하는 게 스님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임을 맡으면서 수행에 전념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쉬운 일”이라며 “자비순례 사부대중과 행선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모여 한국불교가 중흥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칠곡=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로 나무랐다.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낀 희열이 반딧불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40년간 스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스님 말씀이 ‘평생 선방에 다녀도 한 번도 못 느낀 사람이 있고 어쩌다 한 번 느낀 사람, 가끔 느끼는 사람, 자주 느끼는 사람이 있다. 첫 철에 공부 잘했다’며 인정해주며,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다.” 스님은 “출가해 선방에서 정진하는 게 스님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임을 맡으면서 수행에 전념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쉬운 일”이라며 “자비순례 사부대중과 행선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모여 한국불교가 중흥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칠곡=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주 대표는 “코로나 극복과 불교중흥을 위한 이번 순례를 계기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도 10월7일 동화사 입재식에 참석, 이날 아열대인 강변리틀야구장까지 함께 순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월10일 회주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큰스님들께서 순례를 시작하면서부터 경북지역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0명”이라며 “종단과 스님들이 힘 모아 생수 10만병을 지원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세환 구미부시장과 구자근 국회의원도 배석했다. 같은 날 정희용 국회의원도 일일 참가자로 순례단에 합류했다. 정 의원은 출발 직전 파이팅을 외치며 순례대중들을 응원했다. 칠곡·구미=홍다영 기자

“다시없을 인연...민폐 끼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

■ 최고령 참가자 이채순 씨

공주 마곡사 신도인 이채순(75, 충남 아산·사진)씨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 최고령이다. 고운 범목 차림으로 매일 새벽 순례길에 동참하는 이채순 보살은 남다른 의지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채순 보살이 75세의 나이로 순례단에 참여한 것은 스님과 함께 걷기수행을 할 수 있는 생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서다. “혹여 민폐가 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꼭 함께 걷고 싶어서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평생 불자로 살면서 설악산 봉정암을 30여 회 이상 올랐다는 이채순 보살은 걷는 건 자신 있었는데, 막상 대중과 함께 행선을 해보니 어렵고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교차가 커서 아침 저녁으로 춥고,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 속에서 땀을 흘리며 견다가 아열대로 돌아오면, 샤워시설도 마땅치 않아 세면대에서 찬물로 손과 얼굴을 씻어야 한다. 화장실

도 텐트와 멀리 떨어져 있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빠른 걸음을 맞추는 일도 여간 고역이 아니다. 힘든 순간 이채순 보살은 상월선원 천막결사를 떠올린다. 영화 ‘아홉스님’을 보고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를 알았다는 이채순 씨는 “순례 전날 대구 동화사에서 사부대중이 함께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 때 정말 주웠다”며 “초가를 산사에서 보낸 새벽공기가 이렇게 찬데, 스님들이 난방도 하지 않는 천막에서 하루 한

끼 공양만 하며 정진한 게 얼마나 고행인지 절실하게 느꼈다”고 한다. 순례 3일차 고통 속에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지만, 이채순 보살은 스님과 신도들이 응원해주셔서 힘을 얻고 있다. 혹여라도 낙오될까 선두에 설 수 있도록 해 대중의 힘으로 걸을 수 있게 배려한 것이다. 이채순 보살은 “스님들과 건강하게 순례를 마치는 게 지금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대구=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